January 2003

1월 이달의 역사

5

1992 부시 미국대통령, 한국 방문 반대 투쟁격렬
1991 김봉환열사 추모일
1982 야간 통행금지 37년만에 전면해제
1959 신보안법 반대 데모 남한 전국에서 일어남

6

1992 쌀시장 개방반대 전국시위
1990 서울-파리간 KAL기 소련 시베리아 영공 첫 통과
1987 검찰, 고문관련 경관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7

1959 미국, 쿠바의 카스트로 정부 승인
1950 일본, 재일동포 62만명에 강제 등록령 포고
1949 이승만 대통령, 일본에 대마도 반환 요구

12

1994 교육재정확보와 수입개방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1988 북한 중앙방송, 서울 올림픽 불참 공식발표
1973 박정희 대통령, 남북대화의 기본 원칙 밝힘

13

1996 김시자열사 추모일*
1991 일본 가또 관방장관,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 관여 처음으로 공식인정
1979 남북조절위 서울 측, 조절위 및 직통전화 재개 촉구성명
1958 평화통일 주장했던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 7명 간첩혐의로 구속

14

1990 몽골, 시민 5천여명 민주화 요구 시위
1987 서울대생 박종철, 경찰고문으로

1974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3호(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치) 발표

19

1991 이라크, 제2차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
1989 민족영화위원회 소속 영화인 100여명 "오 꿈의 나라"에 대한 문공부 탄압중단 촉구
1975 중국, 신헌법 발표후 국가주석제 폐지

20

1998 노사정위원회, 공동선언문 5개항 타결
1995 미 국무부,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
1993 황인철열사 추모일*
1988 미국무성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목 대북한 제재조치 발표

21

1989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회(전민련), 연세대에서 결성대회 갖고 출범

1976 김영삼 신민당총재, 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26

1994 이오순열사 추모일*
1991 농림수산부, 남북교역활성화 위해 북한과 교역 발표
1980 동해서 조업 중이던 어선 2척 선원 24명 북한 경비정에 끌려감
1965 비둘기부대 2000명 월남파병동의안 국회 통과

27

1994 이창환열사 추모일
1987 〈말〉지 특집호 보도지침 기사 관련자 3명 구속기소
1967 아폴로1호 폭발로 3명 사망
1958 미소문화교류 협정 맺음
1948 김구, 유엔 한국위에서 남북주둔군 철수 후 자유선거 실시 주장

28

1998 한국-국제채권단, 2백40억 달러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합의
1986 미국 우주왕복선 첼린저호 발사 73초만에 공중폭발, 7명 사망
1980 고등군사재판, 박정희 대통령 시해한 김재규에 사형선고
1973 월남전 휴전
1959 일본 경비정 독도 침범
1957 저작권법 공포

1999 유럽 단일통화 '유로' 출범
1995 국제무역기구(WTO) 공식 출범
1983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발효
1979 미국과 중국, 정식 국교수립
1977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자 2백9만5천명 대상 의료보호제도 실시
1966 한국과 일본, 대사 임명에 동의
1959 쿠바혁명으로 카스트로 집권
1949 미국, 한국정부를 정식 인정
1949 친일파와 부일협력자 처단 위한 반민특위 발족

1946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중앙위, 반탁 결의문 발표
1946 조선공산당, 3상회의 결정지지 선언

2

2000 김대중 대통령, 남북경제공동체 제의
1993 미국과 소련,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 조인
1987 이순덕열사 추모일*
1981 언론탄압의 수단인 언론기본법 발효

3

1997 민주노총 9만6천여명 파업돌입
1994 미국의 경제침략 규탄대회 및 한국청년 반미민족자주선언 선포식
1991 원진레이온 노동자 직업병 인정투쟁사건*
1982 중고생 교복과 머리형 자율화 결정
1981 언론통폐합으로 연합통신 창설

4

1997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북한, 경수로 건설부지 의정서 서명
1988 이대건열사 추모일*
1974 긴급조치 1호(헌법논의금지), 2호(비상군법회의 설치) 선포
1966 김두한 의원, 한국독립당 내란음모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
1965 국무회의, 월남에 국군 2천명 파병 결정
1949 반민특위 발족
1932 이봉창 의사, 동경에서 일본왕에게 수류탄 저격의거

1995 부동산실명제 발표

9

1992 핵폐기물 건설 규탄대회
1990 노태우 대통령, 남북왕래 3통(통행, 통신, 통상) 협정위한 정상회담 촉구
1984 북한,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 제의
1950 애치슨 라인 발표
1946 1회 유엔총회 런던에서 열림

10

1990 중국, 천안문 사태때 내린 계엄령 해제
1983 일본 나까소네 수상 방한으로 한일 첫 공식정상회담 열림
1983 북한군 조정사 이웅평, 미그19기 몰고 휴전선 넘어 귀순
1971 대구고등법원 100여 판사,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내걸고 정화운동
1965 사병의 복무연한 2년 10개월에서 2년 6개월로 단축
1951 거창 양민학살사건 일어남
1947 유엔총회, 남북한 총선거 결의

2000 국회, 선거법 개정 합의
1995 미국, 대체에너지 중유5만톤 1차분 북한에 제공
1991 각종 국제경기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1990 헌법재판소, 노동쟁의 3자개입 금지조항 합헌 판정
1987 김만철 일가 11명 철선으로 북한 탈출
1981 민주정의당 창당, 전두환을 당총재 및 12대 대통령 후보로 추대
1974 비상고등군법회의, 긴급조치1호 위반 혐의로 장준하 백기완 등 구속
1973 미국, 월남전 전면정지 발표

1993 임수경, 문규현신부 석방 환영대회
1989 광주항쟁 당시 특전사 중사 최영신씨 양심선언
1988 대검,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관련 강민창 치안본부장 구속
1985 기혁열사 추모일*

16

1992 방한중인 미야자와 일본총리, 정신대문제 포함 과거사 문제 사죄
1991 미국, 이라크 전면공격으로 걸프전 발발. 시민단체 전쟁반대 성명
1955 한미군사원조협정서 조인

17

1994 늦봄 문익환 목사 세상 떠남
1992 박판수열사 추모일*
1989 폴란드 자유노조 합법화 승인
1989 광주미문화원, 광주지검 기습시위
1978 박정희 대통령, 선평화후통일 밝히고 교류확대, 문호개방 촉구
1973 북한, 3대혁명소조운동 시작

1994 문익환목사 영결식

2

1990 민정-민주-공화 3당 통합 선언
1990 전국노동자협회(전노협) 창립
1987 박종철고문치사사건 규탄 평양시 청년학생 집회

1997 한보철강 부도
1995 경수로 사업지원기획단 발족
1981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 피고인 상고기각, 김대중 무기로 감형
1975 국방부, 북한의 대남 비방방송 개시발표
1971 김대중, 연두회견에서 소련 등 동구권과 외교전개 필요언급
1968 북한, 미국의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원산앞바다에서 납북

23

2000 총선시민연대, 66명의 공천반대 정치인 명단공개

1991 정부,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 설치
1989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 6,25이후 기업인으로는 첫 북한방문
1989 구정 명칭을 '설날' 로 바꿈
1946 남한에 반탁투쟁위원회 결성

1993 정운갑열사 추모일*
1992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출범식 갖고 공명선거 활동
1981 10.26뒤 지속돼 온 비상계엄 전면해제

25

1990 국방부, 주한미공군의 기능통합 및 기지 재조정 계획 발표
1958 주한미군, 핵무기 도입 공식발표

29

1999 정성범열사 추모일*
1994 조선업종 노조창립

1981 청계피복노조 강제해산에 맞선 노동자투쟁*
1966 서독파견 간호원 1진 출발

1997 정태수 한보 총회장 수감
1987 경찰, 수배학생 400여명 개학전 검거령
1971 동서베를린 19년만에 전화재개통
1957 북한 적십자회, 남북서신교류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제안
1950 중국, 인민해방군 티벳 제외 중국본토 해방 종료 선언
1949 중국공산당, 북경 입성

이달의 역사 - 1월

3 ● **이순덕열사** : 대전 체육고 재직 당시 민중교육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들의 뒷바라지에 힘을 쏟는 등 충청지역 교육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파면. 양심선언문을 직접 만들어 뿌리던 이순덕 열사는 87년 1월, 학교계단에서 쓰러져 5개월의 투병생활 끝에 31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

4 ● **원진레이온 노동자 직업병 인정투쟁사건** : 원진레이온은 인건사 제조업체로 제조공정 중 인체에 치명적인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과정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생산이 중단된 대표적인 공해업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로 인한 직업병 환자만도 274명이 발생하고 급기야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되어 지금은 그 시설이 중국으로 이전되었다.

1981년 처음으로 이황화탄소 중독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었는데, 그것은 노동부에 의한 직업병 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민사소송을 통해서였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계속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러던 중 88년 7월 산재노동자연맹과 공해연구소 등 노동, 보건, 의료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당시 박영숙, 노무현 의원 등과 함께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 17가구가 협의회를 만들어 농성투쟁을 전개해 9월 14일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직업병 판정위원회에서 직업병 판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해인 89년 8월 22일 1차 등급 판정자로 29명을 확정한 것을 시작으로 직업병 판정자가 무더기로 속출하였다. 그런 가운데 89년 11월, 1등급 판정자인 정근복이 사망(신부전증)하였고 12월에는 이명희가 잇달아 사망(고혈압, 뇌출혈)하였다.

원진레이온 전직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놓고 회사와 노동부가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데 따른 투쟁 사건이다. 직업병 인정과 보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중 가장 상징적이며 의미 깊은 사건으로 이후 노동보건과 환경개념에 진일보한 시각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노동자들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이들을 위해 싸웠으며, 마침내 원진레이온은 폐쇄되고 노동자들의 보건과 건강을 위한 녹색병원을 세우게 된다.

8 ● **이대건열사** : 우성택시 90여 조합원들이 87년 11월 24일부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24개 노조와 연대한 파업이 성과없이 끝나자 88년 1월 6일 파업 19일째에 임금협상 조기체결 및 단체협약 조항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 그러나 회사측이 교섭에 소극적이었고 노동조합의 양보만을 요구하자 협상과정을 지켜보던 이대건 동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신을 감행하여 요구 수락을 촉구함.

13 ● **김시자열사** : 한국전력부속병원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일에 힘써온 열사에게, 어용노조 집행부가 1월 7일 '규약위반' 이라는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와 출석 통보. 한국전력노조 54차 중앙위원회가 김시자, 오경호(광주전력지부 위원장) 2인에 대한 징계를 결의할 예정으로 각본에 따라 징계하려던 중, 열사는 변론을 통해 "징계는 부당하다", "이런 상태로 그냥 있으면 노동조합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말을 남긴 채 밖으로 나감. 잠시 후 열사는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 회의장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14 ● **박종철고문치사사건** :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인 박종운의 소재를 알기 위한 참고인이라는 이유로 1987년 1월 경찰에 의해 불법 연행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년 박종철군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으로 죽은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2.7추도회와 3.3 대행진 등 국민적 저항운동이 벌어지면서 1987년 6월 항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16 ● **기혁열사** 1984년 전남대학교 의과대에 입학한 후 8 · 15반일반제 시위 전두환 방일반대투쟁, 학원민주화 투쟁에 적극 참여. 1985년 1월 반군사독재 민주화운동과정에 발생한 비교육적 부당유급제 반대투쟁 중 행방불명. 1월 16일 무등산 중봉에서 동사체로 발견

18 ● **박판수열사** : 진주농업학교 3학년때 반일지하조직의 책임자로 항일운동. 38년 일본 동지사대 재학 중 반일운동으로 퇴학당하고 구속됨. 45년 해방과 동시에 건준에 참여,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에 입산, 52년도에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조직사건에 연루되어 5년형 추가. 1960년에 병보석 출소하였으나 72년 지하조직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며 등 24년을 감옥에서 보냄.

20 ● **황인철열사** : 민청학련 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 김지하 반공법위반사건, 3.1구국선언사건, 동아 · 조선투위사건, 청계피복노조사건, YH사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원풍모방사건, 서울미문화원사건, 건국대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사건, 문익환 목사 및 임수경 · 문규현 방북사건, 윤석양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의 결성과정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5 ● **정운갑열사** : 88년 삼미특수강에 입사하여, 90년 4대 대의원으로 민주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활동. 92년 임금동결 거부, 인원감축 반대 파업 투쟁시 임파선암 말기 진단을 받고도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도 없이 투쟁하다 운명.

26 ● **이오순열사** : 1985년 경원대에 다니던 막내아들 송광영 열사가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고 외치며 분신하여 운명한 뒤 이오순 열사는 서울 기독교병원에서 화마와 싸우면서도 조국의 자주화와 민주화, 통일을 부르짖는 아들 광영과 조국의 어머니로 살겠다는 약속.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감동의 황색 가죽가방' 으로 불리우며 백골단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열사는 1991년 유가협 부회장을 맡았으며 강경대 열사 치사 경관 공판 도중 부당한 공판에 항의하다 법정소란 혐의로 1년 6월동안 수배생활을 하기도 했다.

30 ● **정성범열사** : 87년 명지대에 입학, 총학생회와 전민학련, 사노맹 등에서 일함. 97년부터는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협의회 조사통계부장 지냄. 98년 12월31일 피를 토하며 집에서 쓰러져 서울중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월 30일 새벽 끝내 폐결핵으로 숨을 거둠. "고통 받는 이들에게 몸을 바치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그의 주검은 의학연구용으로 서울중앙병원에 기증.

30 ● **청계피복노조 강제해산에 맞선 노동자투쟁** : 1981년 1월 6일에는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 의결사항이라며 박영수 서울시장 명의의 노조해산명령서가 전달되었다. 이어 1월 21일 새벽, 경찰은 기습적으로 노조사무실에 난입해 장부와 집기를 탈취한 후 500~600명 규모의 정, 사복 경찰이 평화시장 일대를 포위하여 노조간부의 노조사무실 접근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청계피복노조를 강제 해산시키려 하였다.

청계피복 노조 간부들은 노조강제 해산 조처에 맞서 1981년 1월 30일 때마침 '아세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 한국사무소(아프리 사무실)' 에서 예정되어 있던 본부장 모리스 파라디노와 청계피복노조 지부장과의 면담을 활용해 집단농성을 하기로 결의. 이에 1월 30일 오후 4시 30분 경 청계피복 노조원 22명이 기습적으로 서초동 소재 아프리사무실을 점거하고 '청계노조 해산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장 퇴진하라' 등을 요구하며 농성 전개. 경찰은 1월 31일 새벽 0시 5분, 기동경찰을 투입하여 농성을 강제해산하고 이들을 전원 연행함. 이 과정에서 경찰의 난입을 막으려다 두 사람이 3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한 명은 큰 부상을 입었으며 관련자 중 11명이 구속.

이 사건 이후 청계피복노동조합은 합법성이 쟁취되는 1987년까지 줄기차게 노동조합 합법성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함. 이후 거듭된 합법성쟁취 투쟁을 통해 마침내 1988년 5월 합법노조로서의 신고필증을 받게 된다.